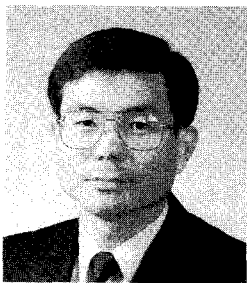


## 품질 좋은 적정 초생추 생산공급이 중요

- 주문, 입란 위주 영업 관행 개선 필요 -



엄 주 철

(주)한국양계TS 부장/상지대 겸임교수

### 1. 서론

우리나라 산란종계·부화산업은 짧은 기간동안 양적질적 빠른 성장을 달려왔다. 국내 산란종계·부화산업은 최신형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내적인 발전과 함께 외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인 것 같다.

국내·외 선진국의 산란종계·부화산업과 생존 경쟁을 위하여 생산원가와 초생추 가격경쟁을 위하여 취약한 부분이 많다. 지난 연말 양계 산업에 불황과 호황이 교차되는 시기에 폭풍 전야처럼 들떠 닥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가 산란종계·부화산업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소독과 방역 그리고 외부인통제, 차량통제, 쥐의 구서, 야조류 퇴치 등에 전념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 2. 본론

우리나라 산란종계·부화산업을 이끄는 전문 부화장은 하이라인 버라이어티 브라운 (Hy-Line Variety brown)을 생산하는 (주)한국양계TS(한양부화장), 양지부화장(인주), 봉산부화장, 신진농원, 4개 회사와 로만브라운(Lohmann brown)을 생산하는 (주)조인(강남부화장)등 전국에 5개 회사가 우리나라 산란종계 산업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 성진부화장에서 이사브라운(Isa brown)종계 입식 육성중에 있으므로 멀지 않아 동승하게 된다.



무나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에도 과도기를 맞은듯 싶다. 과거보다는 현재는 무창시설의 자동화와 유창산란계사 사육 규모의 확대시설, 즉 농가당 사육수수 증가가 되었다.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전반에 나타났던 3D 현상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산란종계·부화산업에도 파

그동안 산란종계·부화산업의 변천과정을 보면 1990년대초 20여개 부화장에서 2000년대초에는 10여개 부화장으로, 2004년 초에는 5개 부화장으로 감소하였다. 산란종계·부화산업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2004년도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 어느새 2/4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약20여년간 한일농원, 고창양계, 중원농장, 현재(주)한국양계TS 전문 산란종계·부화산업에 종사하면서 매년 반복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산란종계 입식량은 산란계 산업에 불황과 호황에 따라 1~2년간 증감을 보이며 불황의 원인을 산란종계·부화업에 종계 입식량을 타하는 경우를 매년 불황 때 볼 수 있다. 특히, 산란종계 입식량 증가는 난가가 나빠지는 산란계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보면 너

급되어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산란종계 실용계 초생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초래하고 있는 설정이다. 산란 종란, 실용계 초생추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보면 시설 자동화와 물가 상승, 사료원료 인상, 인건비 등을 볼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산란계 사육수수가 4,800만수로 볼 때 연간 입식할 초생추를 3,500만수로 본다면 산란종계 수당 70수의 초생추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란종계 입식은 약 50만수 정도의 사육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전육종, 품종개량, 사료의 품질향상·우수한 사양관리기술 등으로 생산성이 좋아졌고 아울러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가계자금 약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연속되는 불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란종계·부화경영자 및 대한양계협회, 산란계 산업의

종사자의 노력으로 산란 종계 입식 수수를 줄이는 노력으로 현저한 감소추세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획기적인 변화를 살펴본다면 산란종계·부화장에서는 병아리 생산을 연장하기 위하여 강제 환우를 하지않은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산란종계·부화산업은 경영자의 마음자세로 자부심을 갖고, 우량한 품종선택과 높은 생산성 사료효율 등 최상의 품질이 영업경영 전략이 될 것이며 전문 영업사원을 확보하여 산란계 양계가의 사양관리지도, 정보제공, 양계가와 직접거래, 신용있는 중추육성사양가 거래로서 품질관리에 전념하여 양계가의 수익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초생추를 생산하여 공급에 임하고 산란종계·부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젊고 의욕이 있으며 전문교육 이수자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란 종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난계대성 질병의 퇴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할수 있게 하고 5~10년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산란종계의 위탁사육, 강제환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산란종계·부화장에서는 초생추 품질의 우수성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산란종계 적정 입식으로 초생추 생산이 부족하길 기대하여 무임승차하려는 경영자의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초생추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산란종계의 적정 입식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 초생추 생산공급이 중요한 것이므로 앞으로 판매 방식은 주문, 입란 위주

모든 산란종계·부화장은 우수 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차별화 정책으로 품종과 품질에 따라 초생추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길 전망한다.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주문받을시 계약금제도, 입란 확인서 통보 등 책임있는 영업이 필요하다.

모든 산란종계·부화장은 우수 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차별화 정책으로 품종과 품질에 따라 초생추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길 전망한다.

### 3. 결 론

산란종계는 그동안 입식수수와 실용계 초생추 생산수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산란계 총사육수수는 줄지 않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제환우로 인한 생산 연장으로 생산성 저하 및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영상 자금난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노계를 최대한 연장하는 현상은 일부 질병 발생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노계 도태물량이 체화될 경우 대체 방안을 연구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산란종계·부화산업은 기본관리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산란업계의 안정적 발전과 양계가의 성공여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양계**